

비가 오는 날에는 태양이 진다

4시 30분. 아직 어두움을 머금고 있는 커튼을 바라봤다. 시선을 벽에 걸려있는 시계로 돌리니 분침이 4시 32분을 지나고 있었다.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살과 근육이 분리되는 듯한, 잠이 덜 깬 몸의 느낌은, 익숙하지만 불쾌한 느낌을 주었다. 깜깜한 새벽에 홀로 창 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자는 세상과 동떨어져 보였다. 창 밖의 암흑에 한참을 머물러 있던 태이의 시선은 창가에 놓여있는 녹음기를 스쳤다. 그제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간단히 씻은 후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태이는 무선 이어폰과 핸드폰을 챙긴 뒤 창가에 놓여 있는 녹음기를 켜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공기를 맞으며 태이는 이어폰 타고 들려오는 일상소리에 집중했다. 레깅스에 닿는 새벽공기가 차가웠다. 아직 몸이 안 풀렸는지, 기지개를 펴던 그녀는 손가락으로 핸드폰 스크린을 눌렀고, 녹음 파일 하나가 흘러나왔다.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있오..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즐랐나...”

남자의 따뜻한 노래 소리였다. 말하듯 노래하는 잔잔한 노래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소소한 기타연주는 노래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따뜻한 노래 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멎었다. 하지만 이내 무심하게 파일을 멈추고 다른 파일을 재생시켰다. 도시의 소음이 그녀의 귀에 흘러 들어왔다. 그러나 노래 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밝은 빛에 눈을 뜬 태이는 시계를 확인했다. 7시였다.

어젯밤도 같이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이어지던 태이와 유안의 대화는 태이가 먼저 잠듦으로 끝이 났다. 태이는 잠결에 느꼈던 자신의 머리칼을 쓸어주던 유안을 생각하니 괜히 부끄러워져 마른 세수를 한 뒤 침대에서 일어났다.

개운한 몸의 느낌에 기분이 좋았다. 기지개를 펴던 그녀는 침대 협탁에 놓인 유안의 쪽지를 발견했다. 깨는 거 보고 가려 했는데 일이 있어 먼저 간다고, 아침을 차려 놓았으니 먹고 가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요즘 그와 그녀의 일과는 똑같았다.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태이의 집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유안은 태이가 잠드는 것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간다. 매일 같은 루틴을 보내는데도, 매일 같이 머리맡에 쪽지를 써주는 유안이 좋았다. 그리고 웬지

미안해졌다.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걸까. 수면장애가 있는 그녀에게 잠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걱정이 됐다. 그의 쪽지를 침대 협탁의 서랍장에 넣은 태이는 이내 침대에서 나와 예쁘게 차려진 아침을 먹었다. 원래 아침은 간단하게 과일이나 단백질 음료로 때웠는데, 이제는 이런 따뜻한 아침이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익숙하다니. 익숙이라는 단어로부터 오는 어떠한 이질감에 태이는 식사를 멈췄다. 그리곤 식탁을 깨끗이 치웠다.

평소와 같이 창가에 놓여진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집을 나섰다. 차키를 찾던 태이는 어제 유안의 차로 귀가를 한 터라 차가 회사에 있음을 자각하곤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핸드폰으로 도착 예정 시간을 찾아보고 온 터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버스에 탈 수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태이는 유안의 노래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새삼스레 유안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 날은 이상한 날이었다. 평소보다 1시간이 늦은 5시 30분에 눈을 떴고,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나갔지만 버스도 놓칠 뻔 했다. 겨우겨우 버스에 탔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큰 이상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전 날에 날씨를 확인했을 때 분명히 비가 온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창가에 사정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을 봤고, 그 후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다만 태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조용한 건물 안이었고, 빨간 우산을 든 한 남자가 곁에 있었다. 그것이 오유안, 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 바지 주머니 안에 구겨져 있던 그의 명함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를 만났는지도 잊고 있을만큼. ‘상담사 오유안’. 그다운 깔끔한 명함이었다. 아주 잠깐 봤던 그였지만 태이에게 그의 인상은 깔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말이다. 태이는

명함에 적힌 그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잠시 바라보다 피곤한 듯이 식탁에 내려놓고 간단히 씻은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비가 우산을 세차게 때린다. 한산한 거리는 비오는 풍경을 한층 더 스산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우산 속 태이는 그런 우울한 풍경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신호등 앞에 서 있다. 건너편의 빨간 우산 속 여자도 태이를 보며 웃는다. 잠시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다. 폭우 속 어울리지 않는 태양같은 빨간 우산을 쓴 여자가 태이를 향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태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부른다.

“엄마!”

그 순간 파도 소리와 같은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를 가르는 소리가 들리고, 태양같은 빨간 우산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 찌그러진 빨간 우산 옆으로 피가 흐른다. 우산에서 나온 것처럼 꼭 같은 빨간색이다. 물웅덩이는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물든다. 그녀와 태이의 웃음 비와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고 있다. 태이는 말을 잃고 그녀를 붙들고 서럽게 울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스산한 거리에는 개미새끼 하나 보이지 않는다. 마치 세상에 그 둘만 남겨진 듯이. 엄마는 가까스로 손을 들어올려 태이의 볼에 손을 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그녀가 입을 움직여 가까스로 태이에게 전한 말은 사랑해. 이 한마디이다.

그 말을 끝으로 태이의 태양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몸의 떨림이 멈추질 않았다. 침구가 온통 땀에 젖어 있다. 처음이었다. 엄마가 죽은 후 한번도 그 날이 꿈에 나온 적은 없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이상했다.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꾸 건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상한 것 투성이다. 온몸이 그날처럼 피에 젖은 듯이 끈적끈적했다. 비도 오지 않는데 그 날의 상황이 생각난 태이는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 우는 법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번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눈물이 멈출 줄을 몰랐다. 그녀의 눈물은 공포,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엄마. 사진 아니면 그저 기억 속에만 머물러 있던 엄마를, 꿈 속에서 보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엄마를 붙잡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너무나도 말랐다.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시려는데, 그녀가 식탁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그의 명함이 눈에 띄었다.

‘상담사 오유안 010-XXXX-XXXX’

그녀는 이게 트라우마임을 알지만,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았다. 들추면 들출 수록 너무 아팠다. 그 날을 마주하는 게, 그때의 태이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함이 연속된 하루에 그녀는 이성을 잃었고, 커튼 사이로 어둠 속에 스며드는 빛처럼 그 틈을 비집고 그가 들어오게 됐다.

그 날 이후 유안은 태이에게 매일 우연처럼 나타났다. 그리고 유안은 그때마다 그저 지나치지 않고 말을 걸었다. 태이는 이미 다 털어놓은 사이인데도, 그 사실이 쑥스러운지 그가 다가오는 것이 어색했다. 어쩌면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다는 것이 두려운 것일 수도.

“태이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면 같이 하실래요?”

옆집에 살던 유안은 이런 뜬금없는 겸상 요청을 하는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유안의 다가옴은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태이는 밀어낼 수 없었다. 같이 밥을 먹는 횟수를 거듭할 수록, 태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그저 인연에서 어느새 그녀의 연인이 되었다.

연인이 된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 매일 같이 저녁을 먹고, 유안이 자신 혹은 태이의 차로 항상 같이 귀가를 했다. 귀가를 할 때면 유안은 태이를 배려해 ‘그’ 횡단보도가 있는 거리를 피해 돌아갔다. 태이는 그런 유안의 세심한 배려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사소한 감정까지도 알아채는 유안은 그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지금처럼 미소를 지으며 늘 말해주었다.

“괜찮아……. 사랑해 태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렇게 계속 되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태이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고백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없었다. 태이는 항상 미소로 답했다. 유안도 한번쯤은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태이의 고백이 그 모든 것을 대신 했다고 생각하며 넘겼다. 그런 유안의 따스함에 태이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따금 버스로 출근할 때 태이는 버스 창문을 바라보곤 했다.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표정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아무런 표정이 없던 창문 속 그녀는 어느 날은 미소를 짓기도 하고, 슬픈 얼굴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태이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이 어색한 듯 얼굴을 붉히다가 이내 다시 웃어보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싫을 만큼 어색했지만, 이제 꽤 익숙해진 태이었다.

태이는 그와 만나며 잃어버렸던 감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었다. 이전에는 자신이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그와 함께 하며 아이가 엄마의 웃음을 닮아가듯이 감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태이가 감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엄마의 죽음 이후였다. 태이는 엄마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겼다. 그 날 괜히 엄마한테 마중 나와달라고 해서, 괜히 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괜히…….

그래서 엄마가 죽은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태이는 그 날 이후 마치 태엽이 감겨 있어 돌아가는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다. 엄마의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 날처럼.

그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지만, 비가 오는 날만은 예외였다. 비가 오는 날마다 그녀는 마치 그 날로 되돌아간 것 같은 끔찍한 공포를 느꼈다. 비는 묵묵히 나아가던 그녀를 멈추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하지만 태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빗소리가 들리지 않게 귀를 틀어막은 채 그저 방 안 깊숙이 숨어있을 뿐. 그래서 태이는 한번도 제 손으로 빗소리를 녹음해본 적이 없다.

간간한 음향감독이기로 유명한 그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다 느끼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있는 태이를 유안이 찾아냈다. 그리고 유안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태이 곁에 항상 있어주었다. 빗소리가 들리지 않게 귀를 막고 떠는 그녀를 품 안에 꼭 안아주었다. 태이의 눈물로 젖은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태이는 평소와는 다르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태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그로 인해 다시 되살아났다. 잠도, 감정도, 사랑도, 모든 것이. 그래서 불안했다.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질까봐.

태이에게 엄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렸고, 또 다시 그런 이별을 겪는다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또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잃는 것이 없었으면 했다. 하지만 태이는 언제든 망가질 수 있는 유리같이 불안정한 존재였고, 그런 자신이 그를 망칠까봐 불안했다. 행복한 순간마다 그런 불안은 늘 덮쳐왔고, 이런 자신이 그를 좋아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행복의 순간은 늘 짧았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한 계절이 지나 여름이 왔다.

- 나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

매일 태이를 데리러 오던 유안이 상담이 밀린 모양이었다. 태이는 그의 문자를 보고서는 바로 유안의 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병원에 도착한 태이는 조심스레 자동문의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얼굴에 쌍꺼풀 진 눈, 화장을 하지 않은 것 같으나 예쁘게 올라가 있는 속눈썹, 곧고 작은 코, 그와 잘 어울리는 살짝 처진 입꼬리의 입술. 그리고 손질을 안해도 자연스레 뻗어 있는 긴 생머리. 귀여우면서도 도도한 인상을 주는 태이는 검은 반팔티에 청바지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병원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태이는 유안의 상담실에서 사람이 나오자 유안에게 문자를 보냈다.

-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문자를 보내자마자 상담실 안에서 물건들을 챙기는 소리가 났다. 유안이 상담실에서 나와 직원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태이를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 얼어버렸다. 태이는 그의 놀란 모습이 귀여워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정신을 차린 유안은 태이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오면 되니까.”

태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유안은 병원이라는 것을 망각한 듯이 태이를 끌어안았다. 그 말은 태이의 고백이나 다름 없는 말이었다. 이 상황이 부끄러운 태이는 유안을 조심스레 밀어냈고, 오래 걸려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시간 쯤 지났을까. 때는 해가 긴 여름이었고, 뜨거운 햇살을 가진 여름은 비를 데려왔다.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부드럽게 노크하듯 떨어지던 비가 어느새 불청객의 방문처럼 병원 창문을 쉴 새 없이 두드렸다. 유안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환자와 상담을 할 때도

신경은 온통 문 밖에 가 있었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빗소리에 유안은 컴퓨터 모니터 속 애꿎은 환자 기록만 께다 께다를 반복했다. 상담이 끝나자 유안은 다급하게 문을 열고 태이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귀를 틀어막고 주저 앉아 울고 있는 태이가 보였다. 유안은 늘 그랬듯 얼른 태이를 품에 끌어 안아줬다.

“아니야, 듣지 마. 태이야.”

태이를 안고 있던 유안은 귀를 막고 있는 태이의 손에 자신의 손 덮어 감싸줘었다. 병원 안에는 빗소리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둘을 바라보았다. 태이는 트라우마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또 나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도 나, 무례한 사람도 나, 사랑하는 유안을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남게 만든 것도 나. 빗소리보다 이 상황이 더, 죽도록 싫었다. 결국 태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다. 유안은 태이의 얼굴을 살폈고, 태이의 얼굴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유안은 태이를 다시 품 안에 끌어안았고,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울분을 토해내듯이 말을 이었다.

“미안해. 그냥 다 나 때문에…”

하지만 태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유안의 집이었다. 비는 그친 뒤였다. 그녀의 발치에서 엎드려 자던 유안은 움직임を感じ자 일어났다. 태이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탈수가 걱정된 유안은 얼른 태이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 목이 말랐던 태이는 물컵의 물을 두 번에 나눠서 다 마셨다.

“미안해.”

유안은 슬픈 표정으로 태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서 귀 뒤로 넘겨주었다.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이렇게 너는 늘 내 걱정

뿐이다. 태이의 얼굴에서 떠나려던 그의 손을 태이가 잡았다. 유안의 손은 태이의 볼을 감싼 채로 가만히 멈추게 되었다. 괜찮다는 말 대신이었다. 태이는 유안의 손을 그대로 내려 자신의 두 손에 꼭 쥐었다. 내가 왜 좋아? 라는 구차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애초에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웃으며 한 말은,
“음... 나 노래 듣고 싶은데.”

그녀의 웃음에 유안도 마주 웃으며 방 한켠에 놓인 기타를 가지고 왔다. 잠시 고민하던 유안은 이내 잔잔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태이는 웬지 이 순간을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아 습관처럼 녹음을 시작했다. 둘의 공간에는 유안의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있오...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즐랐나...”

창 밖은 캄캄했고,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에는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네온 사인만이 안간힘을 다해 차가운 도시를 비출 뿐이었다.

밤에는 쌀쌀할 정도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었다. 어제 유안의 차로 귀가한 태이는 버스로 출근을 했다. 버스로 출근을 하니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길이 갔다. 거리에는 낙엽들이 하나 둘 떨어져 어느새 낙엽으로 가득해지고 있었다. 정류장으로 걸어오는 내내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낙엽들은 엄마를 생각나게 했다. 가을이 되면 항상 엄마와 낙엽이 깔려 있는 거리로 가을 나들이를 나가곤 했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태이는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낙엽의 소리를 녹음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니 유안 생각이

났다. 그와 같이 듣고 싶었다. 가을의 소리를. 창문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수들은 빨강, 주황, 노랑, 울긋불긋 물들어 있어 창문을 알록달록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가을 풍경을 지나 회사에 도착한 태이는 사무실에서 차키와 녹음장비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덩치와 사뭇 다른 커다란 SUV 운전석에 앉아서 태이는 핸드폰 화면을 꺾다 켜는 것을 반복했다. 핸드폰 화면에 유안에게서 온 연락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으로 핸드폰을 킥홀더에 던지듯이 넣고서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저 닿는대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달리던 태이의 차는 어느 해안가에 멎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파도 소리는 그 날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파도소리, 차가 정차하는 소리, 그리고 빨간 우산. 그러나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 그리고 엄마를 흘려보낸 곳이 바로 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심란할 때면 바다에 와서 차 안에서 바다의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곤 했다. 지금도,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바다를 응시하며 가만히 그저 앉아있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지만, 무음상태인 핸드폰은 그녀의 상념을 깨지 못했다. 창문 속의 풍경은 마치 그림같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 그 하늘과 꼭 닮은 색의 푸른 바다, 연갈색의 모래사장을 걷는 한 두 사람의 모습. 그 위로 겹쳐보이는 태이 자신과 엄마의 모습. 태이는 순간 목이 죄어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창문을 열었다.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닷바람은 태이가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그림도, 어떤 사진도 이것보다는 아름답지 못한 그 풍경의 한자락이 되게 해주었다. 하지만 어쩐지 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눈물은 그림과 현실을 가르는 벽이었다. 그런 그림 밖의 현실은 그림을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다.

“나랑 저녁먹자.”

유안은 저녁준비를 하는 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드폰으로 태이와 한 문자를 계속 봤다.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태이가 유안에게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그는 태이의 말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도 이내 다시 쥐고 문자 내용을 훑었다.

잠시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태이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처음이야.”

“뭐가?”

“너가 나한테 밥 먹자고 한 것도, 이렇게 나한테 요리해준 것도.”

“아.”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식탁 너머 태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검정 브이넥 블라우스에 늘 하던 실머 목걸이를 하고 있는 태이는 평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지만 목하 사랑에 빠져있는 유안의 눈에는 하루 하루 태이가 더 예뻐 보였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어도 언뜻언뜻 비치는 그녀의 어두운 표정이 가려지지는 않았고, 유안은 그녀의 표정을 알아챈 순간 불안해졌다.

“좋아해 태이야.”

유안은 불안함에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그저 살짝 미소만 지을 뿐 고백에 대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런 정적은 싫다. 유안의 불안함은 둘의 식사에 수다라는 형태로 가득찼다. 항상 말을 시작하는 쪽은 유안인 것은 평소에도 늘 그랬지만, 그는 웬지 오늘은 정적이 무서웠다. 긴장감이 흐르는 식사가 끝나고 어느새 두 사람은 소파에 같이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협탁에 둔 채. 몇 번의 대화가 오가고, 정적이 찾아왔다. 그 때 침묵을 지키던 태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

“나 이제 그만 가 볼게.”

유안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지 아는 듯이 그녀의 말을 끊고 일어섰다. 유안은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니, 들어야 돼.”

태이를 등지고 선 유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왜?”

돌아서서 그녀를 보는 유안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태이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코가 시큰거렸다. 하지만 약해지면 안된다. 이런 것을 예상 못하지는 않았으니.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미안해. 그냥… 너무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왜…? 그럼 오늘 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유안은 태이의 손을 잡았다. 그가 느끼는 것이 맞다면, 그녀는 아직 그를 좋아한다. 그의 생각처럼 그녀는 힘겹게 그의 손을 떼어놓고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때로 돌아가는 거야. 오늘 잘 자고, 내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몰랐던 그 때처럼 그렇게 살아주라. 부탁이야.”

잘 자라는 저 말. 그게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에 유안은 더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보다 더 간절한 부탁이었으니. 태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유안으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그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녀여서 유안은 더 애달파졌지만,

그래서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으나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유안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태이의 집에서 나갔다. 집 안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춥고 어두웠다.
그런 집에서 태이는 묵묵히 맥주와 안주거리들을 치우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집 안 곳곳에 유안의 물건이 가득했다. 유안의 흔적들은
이따금 태이를 멈추게 했다. 태이는 유안의 물건을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았다. 작은 상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청소를 마친 뒤
그녀는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모든 걸 잊으려는 것처럼. 샤워를 하며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것이 물인지 그녀의 눈물인지 태이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에 들 수는 없었다. 벽 너머 유안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잠 들 수 없는 긴
밤이었다.

의도치 않게 그의 목소리를 들어버린 태이는 착잡했다. 들어와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마친 태이는 현관문을 열으려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그녀의 컵가에는 그의 노랫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5시 30분. 만약 지금 유안을 마주하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다. 그렇게 집을 나서는
그녀의 시야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개를 드니 유안이 서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오늘도 잘 못 잤나보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불안한 예감은 왜 항상 어긋나지를 앓는 건지. 유안은 그녀에게 성큼 다가와 조심스레 그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태이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내가 뭐 잘못된 거야?”

유안은 다시 한 번 태이를 붙잡았다.

“아니.”

태이는 아니라는 말 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나려하자 유안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유안의 온기가 차가운 태이의 손에 전해졌다. 갑작스레 전해진 온기에 태이의 시야가 뿌옇게 변했다. 또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가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둘을 감쌌다. 출근이 이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려왔다. 빠리릭. 도어락 소리가 둘의 정적을 깼다. 맞잡았던 손이 떨어지고, 태이의 손에 머물러 있던 유안의 따뜻한 온기가 다시 유안에게로 돌아갔다.

인간의 슬픔에도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현실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유안은 아픈 마음을 안고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해줘야 하고, 태이는 트라우마를 지닌 채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유안은 태이를 만나려 노력할 것이나, 그만큼 태이도 유안을 비껴가려 노력할 것이므로 둘은 평행선처럼 만나지지 않을 것이다. 가을,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오고, 그들이 만났던 계절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추운 듯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아침과 밤에는 여전히 추웠지만, 낮의 해는 꽤 따뜻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계절이었다. 따뜻한 계절을 맞고 있자니 태이는 괜히 마음이 이상했다. 게다가 웬지 오늘은 그를 꼭

마주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직 그를 잊지 못한 태이는 우울증이 더 심해져 한층 더 마르고, 창백했다.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데.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예감은 어긋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유안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피한 듯 고개를 떨궜고, 그녀의 뒤로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에. 유안은 여전히 다정했고, 태이는 더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시야로 유안의 빨갛게 얼은 손이 들어왔다. 대체 얼마나 기다린 거야. 고개를 푹 숙인 태이의 위로 유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었다. 혹여 그의 얼굴을 잊을까 매일 매일 머릿속에 그의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태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정했다. 그럴 사이 아니지 않나. 이 말 한마디를 하고 태이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거의 반 년만의 만남이라 그런지 태이는 일을 하면서도 유안이 자꾸 생각났다. 한동안 괜찮았는데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지 않았다. 오늘은 태이 엄마의 기일이었다. 웬지 유안은 알고 찾아온 것 같았다. 내가 말했던 적이 있었던가. 태이는 멍하게 중얼거렸다.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결국 태이는 일찍 퇴근을 해 바다로 향했다.

바다의 풍경은 늘 같았다. 파도소리도 여전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엄마를 흘려보낸 그곳에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졌다. 힘 없게 열린 차 문으로 신발과 양말을 벗은 태이의 맨발이 나왔다. 그녀의 발은 까슬한 돌바닥을 지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닿았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그녀를 자꾸만 멈추게 했지만, 그래도 태이는 계속 발을 땀다. 마침내 해변가에 도착한 태이는 가만히 멈춰섰다. 축축하게 젖은

모래가 그녀의 발 아래 있었고, 바닷물이 일정한 패턴으로 태이의 발을 감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다. 어느새 그녀는 파도소리를 신경쓰지 않고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여러가지 생각에 잠겼다. 죽을 것 같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따라 그녀 안의 뛰고 있는 심장이 엄마가 마치 살라고, 꼭 행복하라고 남겨준 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안을 잊기로 했다. 이사 준비도 마쳤고, 음향 일도 다른 곳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기에 오늘은 마음 속으로 유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이었다. 구름으로 가득찬 하늘은 해를 보여주지 않았고,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왔다.

집에 돌아와 근처에 작은 단골 식당에서 간단한 요깃거리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한 잔 한 잔에 유안과의 추억을 기울이며 마셨다. 빨간 우산, 그와의 첫 만남, 그와 마주 잡았던 손, 그와 함께 했던 저녁식사, 그의 노래, 그의 모든 고백까지. 비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비가 창문에 붙어 눈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이는 그 소음으로 가득찬 창문을 가만히 바라보며 술잔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그녀는 다시 술잔으로 시선을 내리고 느리게 술을 따라 힘겹게 마셨다. 비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거세게 내렸지만, 그것조차 관찮을만큼 태이는 어느덧 취해있었다. 덥고 몽롱한 이 기분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빗소리가 시원하게 느껴졌고, 자꾸만 엄마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는 늘 막걸리와 식혜를 만들곤 했다. 그렇게 두 모녀는 비오는 날을 만끽했었다.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그와의 함께한 모든 기억들도 그녀를 덮쳐왔다. 이제 그만하자. 태이는 마지막 잔을 비우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서 발걸음이 향하는 곳으로 걷고 또 걸었다.

태이 엄마의 기일에 맞춰서 찾아온 유안은 태이의 모습을 보고 그저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괜히 더 그녀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착잡했다. 너무 말랐던데. 안 그래도 마른 태이가 눈에 띄게 더 말라서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왜 오늘따라 상담이 이렇게나 많은 건지 답답했다. 아침에서 오후가 되니 비가 쏟아져내리기 시작했다.

봄비였다. 쉬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비를 보며 유안은 더욱더 심란해졌다. 당장이라도 태이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밖이 깜깜해져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비는 그치지 않고 아까보다 더 세게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달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창문은 계속 비로 인해 흐려졌다. 굵은 날씨가 창문을 가려서인지, 아니면 태이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유안은 태이와 만날 때 절대 가지 않던 '그'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하고 태이를 처음 만날 때 썼던 빨간 우산을 썼다. 그러곤 횡단보도에 우두커니 서 빗소리를 들었다.

같은 시각, 태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있었다. 인적 없는 거리는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깜깜한 밤거리에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비는 하얀 눈 같았다. 우산이 없는 태이는 비에 흠뻑 젖어있었지만, 태이는 귀를 가리지도, 울지도 않고 꼳꼳하게 서 있었다. 고개를 하늘로 향한 채 눈을 감고 비를 맞던 태이가 눈을 떴다. 앞을 보니 맞은편에 빨간 우산을 든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엄마...”

시야를 가리는 세찬 비 속에서 형태는 보이지 않았지만 왜인지 태이의 눈에는 엄마처럼 보였다. 잠시 그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태이는 발걸음을 떼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오랜만에 엄마를 봐서 그런가. 웬지 모를 긴장감에 다가갈 수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점점 힘이

풀렸다. 얼른 가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태이는 초연하게 계속 걸어갔다. 엄마가 태이를 향해 웃고 있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태이는 엄마의 미소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차가운 비를 맞고 있었지만, 태이의 얼굴에서 흐르는 것은 뜨거운 물이었다.

그렇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으려는 순간, 태이의 옆에 환한 빛이 비쳤다. 파도 소리와 같은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이는 타이어의 마찰음 속으로 파묻혔다. 그 사람의 빨간 우산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달려와 태이를 품에 끌어 안았다. 그녀는 온기를 느끼자 살며시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엄마가 왜 사랑한다고 했는지 것 같았다. 또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세 글자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해. 그녀의 고백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때는 밤이었다. 태이의 감은 눈 위로 태양이 내리쬘었다.